

시론

사라진 갈마법

부처님의 교단인 승단을 '화합하는 무리'라 하여 화합대중이라 한다. 부처님은 교단이 유지될 수 있는 첫째 조건으로 계율을 지키도록 제자들의 화합을 항상 역설하였다. 계율을 지키는 화합대중은 대중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 화합하려고 노력하고 남의 착한 일은 대중에 널리 알려주고 허물은 숨겨주며, 부끄러움은 알리지 않고 가려주고 비밀을 들으면 감추어주고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

나를 내세우고 고집하면 어찌 화합대중이라

작은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는 크게 갚으려 생각하고 자기에게 원망을 하는 사람엔 항상 착한 마음을 내며, 원망을 사람과 친한 이가 똑같이 괴로워하면 먼저 원망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어야 한다. 꾸짖는 자나 와서 때리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며 모든 중생을 부모와 같이 여기려고 애쓴다. 자주 상하가 대담으로 바른 법을 논하고 서로 공격하고 순종하며 법을 받들어서 법에 금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철우

(과계사 영산율원장)

그리고 많은 스승과 벗을 보호하고 바른 생각을 가져서 스승을 공경함을 으뜸으로 여긴다. 욕망을 떠난 깨끗한 수행으로 중생의 복을 이익에 따르지 않으려 애쓰며, 남을 먼저하고 나를 뒤로 하여 이익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러한 대중들을 이끌어가는 이를 율장에서는 장로라 불렀다. 장로는 대중의 가장 뒷자리의 스님이다. 좋고 나쁜, 크고 작은 일들이 장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자면 자연히 이랬사람들의 불평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불평을 마음으로 삼키는 것이 수행이며 대중생활은 화합하는 힘을 기르는 곳이었다.

부처님께서 사바티의 교의 제타 숲의 정사에 계시 때이다. 두 비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한 비구가 잘못을 거듭 사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비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점차 소란해지자 비구들은 사과하는 비구를 중용해 부처님께 나아가 전후 사정을 사죄해 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죄를 범하고 인정

하지 않는 잘못과 마찬가지로 용서를 비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잘못도 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죄를 인정하고 그 잘못을 빌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함께 현명한 사람이라 한다."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 때 부처님은 장로들로 하여금 대중에서 어른이 되어 잘못을 풀어나가는 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갈마법이다. 머리를 꺾고 모여살기만 하는 것만으로 대중이라 할 수 없다. 서로 화합하려 애쓰고 어른을 공경하고 계율을 지키며 청정하게 사는 것이 화합한 대중이라 할 수 있다. 이 갈마법이 사라진 것은 바로 세속의 법에 의존하여 산다는 증거이다. 화합의 시작은 자신을 내세우는 경쟁이 아니다. 나를 내세우고 고집할 때 화합은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화합한 스님들에게 선거란 맞지 않는다. 화합이 깨어지는 시비가 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명예를 얻려고 하면 권력을 남용하는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명예와 거울은 사소한 일로도 흐려진다는 외국의 속담이 있다. 명예란 이름 석자와 체면에 해당된다. 속한 문중이나 개인

의 주위에 세력을 넓혀갈 수는 있겠으나 한 사람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절집안에서 감투목심

승단 더럽히는 속된 짓

'중배슬 닦배슬'이란 말이 있듯이 절집안에 감투란 것이 무어 쓸데가 있단 말인가. 보살직 없는 것이 불과하다. 일부 본사의 주지로서 거에서 수행자 본연의 풍토를 흐리게 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린다. 우리가 화합대중으로 살아가려면 승단의 이들을 더럽히는 그런 세속적인 선거는 하지 말아야 한다. 수행자로서의 바른 길을 걷다보면 그만한 대가의 공경과 존경을 얻을 수 있지만 명예에 집착한다면 오히려 해가 돌아올 것이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단원들의 입에서 '스님네의 감투 싸움'이라는 말이 들려와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열린마당

선암사 사태

선암사를 둘러싸고 우리나라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과 태고종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조계종은 9일과 17일 총무원과 전 남지역 5개 교구본사 공동명의의 성명서와 중앙종회 결의문을 통해 선암사가 본래 조계종 사찰임을 주장했다. 태고종은 선암사

에 총무원을 설치하고, 17일 열린 총회에서 총림법을 제정해 선암사를 태고총림으로 설정하는 등 두 종단 모두 한치의 양보의 기색도 보이지 않고 있다. 두 종단의 입장차 선암사 사태를 바라보는 재가불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조계종소유...대화자세 되찾자"

조계종 입장 제원(총무원 기획실장)

1600여년 한국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치열한 수행 전통과 계율을 묵숨보다 중하게 여기는 호혜의지에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정신과 의지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퇴색되고 왜색화되어 왔다. 이를 바로 잡고자 펼쳐 일어난 사건이 정화운동이다. 태고종측 스님들도 이를 인정하고 1970년 한국불교태고종을 창종하며 "경향각지의 사찰의 관리권이 태고종과는 아무런 관련을 없음"을 각서로 명시하고 물러났던 것이다. 국가에서도 1969년 10월23일 '종헌개정결의 무효 확인 소송' 최종판결에서 '한국불교의

법통은 조계종에 있음'을 명백히 판결하였으며, 1971년에는 전국의 태고종 무단점유 사찰을 조계종 명의로 등기해 줌으로써 법적인 소정신과 의지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퇴색되고 왜색화되어 왔다. 이를 바로 잡고자 펼쳐 일어난 사건이 정화운동이다. 수년 전부터 태고종측이 분쟁이 안료되었음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또한 근자에는 총무원을 선암사로 옮기고 승려대회를 개최하는 등 화합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을 보인 것은 실로 실망스럽고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처사이다. 본 종단은 하루 빨리 원 상태로 돌아가 다시 진지한 대화의 자세를 되찾기를 촉구하고 기대하는 바이다.

"청정수행가풍 조계종서 이어야"

강민영(불교사학자)

한 목숨 내던진다는 각오로 수행하고 가람수호에 임해야 온전한 수행자가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레야 불조의 혜명이 이어진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선암사 문제는 조계종과 태고종의 문제가 이전에 정통불교를 지키려는 비구와 왜색불교의 잔재인 대처와의 싸움이다. 불교분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50년대에 입산한 사람들은 태고종을 원하지 않았다. 어느 종단인지, 자기의 인사가 대차인지도 모르고 입산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몇차례 갈등이 있었다. 수행자는 속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스님들은 선암사에서 쫓겨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더 처한 스님들에서 공부하길 원

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그런 생각을 지닌 스님들이 많이 계신다. 따라서 불교의 정통과 왜색불교 잔재와의 싸움이 선암사 문제의 본질이다. 조계종이 법의 관경을 근거로 선암사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수행자가 세속법에 기대어 문제를 풀려는 비불교적인 것으로 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종교라고 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지 않나. 불교의 정통성에서 뿐만 아니라 세속법으로도 선암사는 조계종의 소유권이 분명하다. 선암사 문제는 한국불교의 청정수행가풍을 이어가려는 비구와 이에 맞서는 대처와의 갈등이다. 그렇다면 선암사에는 누가 살면서 수행하고 기림을 수호해야 하는지 자명하지 않은가.

원인조명 세미나·헌법소원 추진

태고종 입장 지성(총무원 총무부장)

50년대 자유당 이승만 독재정권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유시로 인하여 이 땅에 불교분규·법란이 일어났으며, 지금은 폐지된 불교재산 관리법에 의하여 정부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처사로 전국의 수천여 대가람을 침탈당했다. 그들은 오늘날 새 정부 대통령 취임 이틀을 앞두고 선암사를 강점하려 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과 호남지역 4개 교구본사 주지 명의로 적반하장격으로 삼보장재를 탕진하며 터무니없는 주장과 광고를 내 국민들과 2천만 불자, 그리고 호남지역 주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본종에서는 이에 대하여 논쟁 또는 반박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불타의 가르침대로 묵빈 대처하고, 총무원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참고로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78년 4월 대법원 판결에 이 유없다고 기각된 것과 61년 10월 비구측 승헌은 무효이고 태고문속 승헌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상기하기 바란다. 역사 이래 전례없는 불교법란, 분규의 원인을 새롭게 조명하고 전도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분규정리 세미나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출할 뜻을 밝힌다.

"태고종이 남인가...타협책 찾길"

이원섭(시인)

도대체 절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께 절하는 곳이기도 절인 것이다. 곧 부처님께 예배드리며 그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출가자들의 실천장(도량)이 절인 것이므로, 절의 성립 요건을 가람의 융성할 때 경제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수행의 유무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절을 머무는 의식없이 머무는 곳(不住而住)-마치 봉우리에 무심히 머물던 구름이 다시 무심히 그곳을 떠나가는 듯한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홍인(弘忍)스님으로부터 의발(衣鉢)을 전수받은 육조대사(六祖大師)는 그날밤이 되던 없이 그곳을 떠났다. 이렇게 머무없이 머무는 정신에 투철

치 않았던들, 조계의 법맥이 어찌 오늘까지 존속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조계종 측에 권하고 싶다. 태고종에서 마음있어 허거든 선암사측 쾌히 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태고종이 어찌 남인가. 뿌리를 같이하는 다른 잔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절이란 절을 모두 잃은 것이 태고종인데, 오직 하나 남은 그 절마저 뺏어 버렸다는 것인가. 만약 그리 못하겠다면 백년쯤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도 좋겠고, 다시 그것도 안된다면 어떻게든 타협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나는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정통임을 인정한다. 그러기에 대인(大人)다운 처신으로 만인의 추앙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고, 결코 법정에 나가 망신당하기를 원치 않는다.

조계-태고 분규일지

- 1954년
△5월: 이대의 이종익 이재열 문선영 강석주등 불교정화운동 발기
△5월21일: 이승만대통령 제1차 유시발포 (이후 55년 8월까지 7차례, 발표)
△6월25일: 교단정화추진준비위원회 구성
△7월6일: 불교조계종 종헌 공포시행
△9월27일: 한국불교조계종종헌개정 공포
1955년
△1월: 비구측 보조종조본과 대처측의 태고종조본 대립
△2월15일: 승려지적 8대원칙 규정
△8월15일: 대한불교조계종종헌개정 공포
1959년
△1월3일: 비구·대처측 분쟁종결을 위한 성명서 발표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불교분규수습에 대한 담화문 발표
1962년
△1월18일: 비구·대처 양측, 불교재건위원회 구성에 합의
△4월14일: 대한불교조계종문교부내 등록
1967년
△2월6일 비구·대처 양측 지도급 승려 30명, 아서원에서 조계종 발전 위한 추진위원의 간담회, 통일종단의 종헌 재확인 협정에 서명.(27일 대처측, 아서원 모임 참석자 이탈자로 규정, 분쟁종결)
1969년
△10월23일: 대법원, 대처승적이 불합종단을 상대로 대한불교조계종 종헌 결의 및 종정추대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를 이 유없다고 기각.
1970년
△4월16일: 대처승속, 제9차 전국대인원 회의에서 한국불교태고종으로 독자노선 선언.
△5월8일: 한국불교태고종 창종. 문교부 태고종의 불교단체 등록입수.
1973년
△9월21일: 조계종, 태고종의 등록 취소건의 분규대연.
1976년
△6월11일: 대한불교 산하 15개 종단, 불교 분규종식에 관한 결의문 채택
1988년
△8월5일: 조계·태고 양종단 총무원장을 포함한 건부 9명, 문교부 회의실서 회합, 사찰분규 해결 모색
1995년
△1월17일: '조계 태고 분규사찰 실무협의회' 구성.
1998년
△2월28일: 세신스님들 조계종 스님 80여 명 선암사 진입, 12시간 대치 후 해산.
△3월25일: 태고종, 선암사서 승려대회 후 총무원 현관시.
(한국불교연대대사(시공사) 참조 임연태 기자 <ytlm@buddhopia.com>)



△98년 1월 40년만에 조계종 총무원장인 필주스님(오른쪽)과 태고종 총무원장 서봉스님이 만나 분규종식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선암사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중대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스러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보급가 :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최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4-9490, 34-9491
야간 : (0342) 706-3060

"영가들이 확실하게 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클쓴이: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모범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내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고통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 하는가?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시킬수 있는 모범은 무엇인가?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내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4-9490, 34-9491
야간 : (0342) 706-3060

천천 육산가 옥의 신비!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심건,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햇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증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료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옥산가 옥이 의미있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사 소위(대)에 관하여는, 옥을 액방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랜딩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은호 상점 (02) 777-0105 (우원판매부)